

대전 · 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통계학과, kdj0113@korea.ac.kr)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목 차

< 요약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분석 자료
- III.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현황
- IV. 노동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V.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 VI.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 대전·충남지역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며,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대전·충남지역 대학졸업자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과를 파악하고 충남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로 분석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대학출신 취업자중 동일지역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31%로 타시·도에 비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의 전공일치도는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게 분석되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장 충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인재양성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졸업자의 어학능력,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은 매우 높았지만 대기업 취업률은 낮아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과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 인재양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의 대기업 및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전·충남의 졸업자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역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전·충남은 지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역의 노동시장에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을 통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임금수준도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 정부의 지원 또한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서울지역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을 들 수 있으며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과 임금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따라서 대전·충남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전·충남의 대학생이 좋은 조건으로 지역의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분석 자료

- 대전·충남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를 이용하였다.
- 2007GOMS1은 2006년 8월 및 200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출신전공 및 진로에 대해 수록한 패널이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매년 1만 8천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총 18,050명의 관측치 중 전문대학 5,354명을 제외한 남성 7,207명과 여성 5,489명인 총 12,696명을 분석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대상의 나이는 만19~70세까지 관측되었으며, 만23~29세 사이가 11,885명으로 93.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Ⅲ.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현황

1. 취업현황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높지만 대기업 취업률과 월평균임금은 낮은 편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75.6%로 서울, 인천·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경우 고용인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62.67%가 취업했으며, 5.52%만이 고용인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였다.

<표 1> 출신대학 지역별 회사규모의 고용비율(%)

지역	300명 미만	300-999명	1,000명 이상	미취업	계
대전·충남	62.67	7.39	5.52	24.42	100
서울	50.22	10.19	15.78	23.41	100
부산	56.12	9.76	8.74	25.39	100
대구·경북	56.76	8.38	8.52	25.38	100
인천·경기	56.75	9.45	12.06	21.74	100
광주·전라	59.59	6.59	5.92	27.91	100
울산·경남	53.74	9.82	9.48	26.96	100
강원·제주·충북	62.42	7.92	4.35	25.81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GOMS1』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 취업률이 낮아 타 시·도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전·충남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은 146.6만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졸업생 평균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졸업자와 임금수준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기업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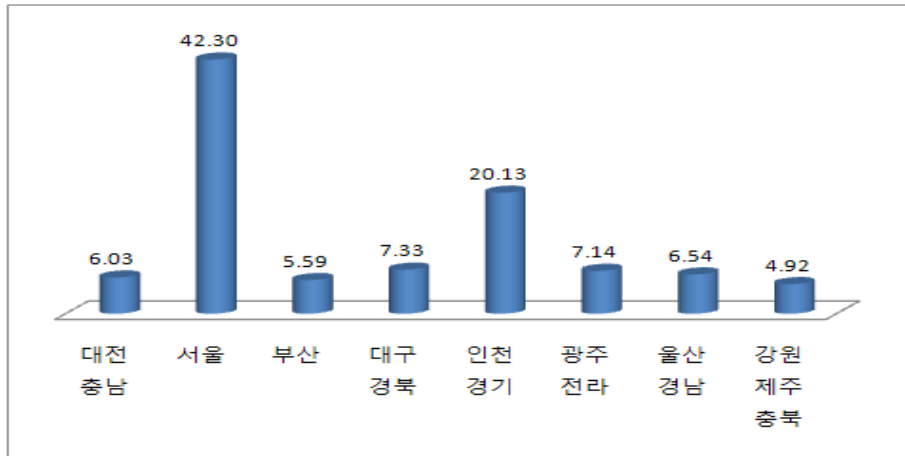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출신대학 졸업자의 월평균임금 (단위: 만원)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대전·충남	163.20	129.51	146.56
서울	194.14	150.13	167.87
부산	162.15	130.47	144.73
대구·경북	158.14	115.93	138.15
인천·경기	183.03	137.71	159.44
광주·전라	164.31	128.97	148.41
울산·경남	171.11	117.50	143.31
기타(강원·제주·충북)	163.65	137.71	152.41
전국평균	172.20	135.16	153.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GOMS1』

◆ 대전·충남지역 대학출신 취업자가 동일지역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31%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음

- [그림 1]은 지역별 취업비율이다. 전체 취업자중 42.3%가 서울로 취업했으며 20.1%는 인천, 경기지역으로 취업해서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전체취업자의 6.0%만이 취업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취업비율(%)

○ <표 3>은 지역대학출신 취업자의 지역별 취업비율을 보여준다. 대전·충남 지역 대학출신 취업자중 36.7%가 서울로 취업하였으며 31.0%만이 다시 대전·충남지역에 취업하여 지역내 취업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지역 대학출신 취업자중 70.2%가 다시 서울로 취업하여 지역내 취업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경남, 광주·전라, 부산, 대구·경북 순이었다.

<표 3> 취업자중 지역내 취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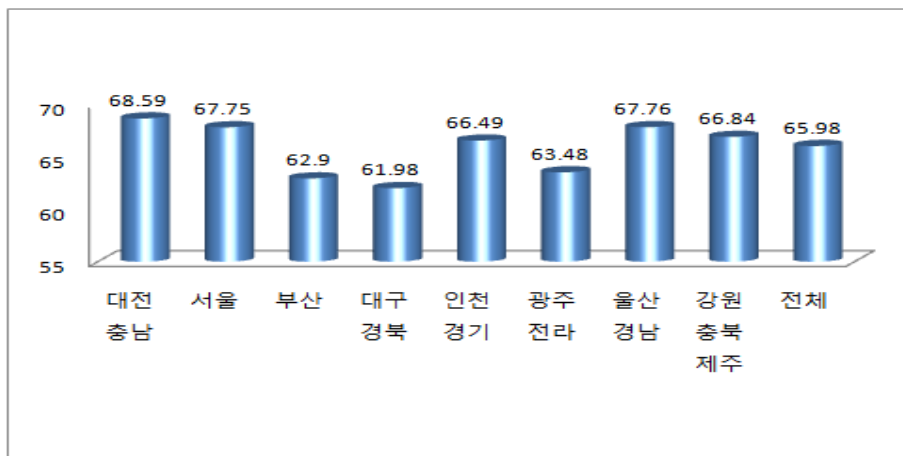
구분	대전충남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울산경남	강원제주충북
대전·충남	31.03	2.42	0.70	2.91	2.23	3.47	1.59	4.88
서울	36.71	70.23	15.46	19.50	51.52	21.65	11.34	36.10
부산	0.87	0.88	55.85	2.91	1.03	1.12	8.62	0.73
대구·경북	2.19	1.27	2.65	54.80	1.37	0.61	5.22	1.04
인천·경기	22.29	20.42	5.01	9.02	38.75	11.24	4.08	22.41
광주·전라	1.66	1.08	0.56	1.07	1.14	59.35	1.81	1.66
울산·경남	1.05	1.54	20.61	8.44	1.43	1.23	66.67	1.14
강원·제주·충북	3.93	1.85	0.56	1.26	2.40	1.23	0.68	31.7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대전·충남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육현황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의 첫 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는 가장 높음

- [그림 2]는 대학교 졸업자의 첫 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에 대한 분석으로, 대전·충남지역 졸업자의 전공일치도는 68.6%로 타 시·도 대학졸업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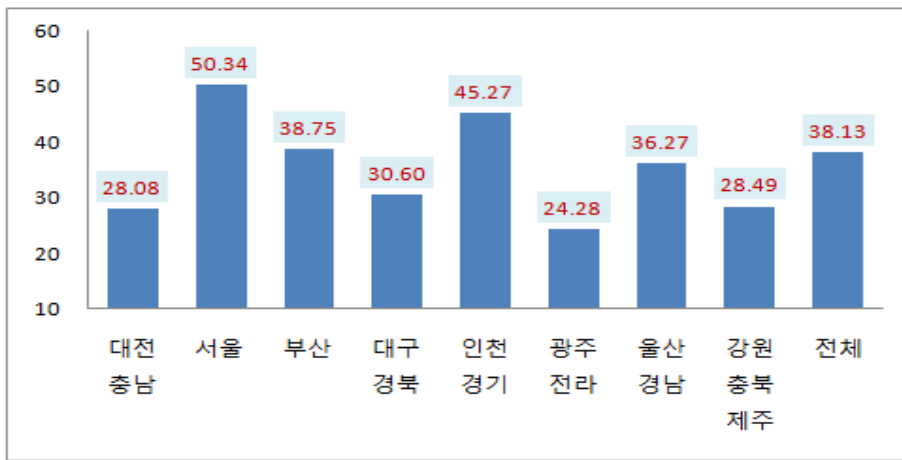


[그림 2] 출신대학 지역별 전공일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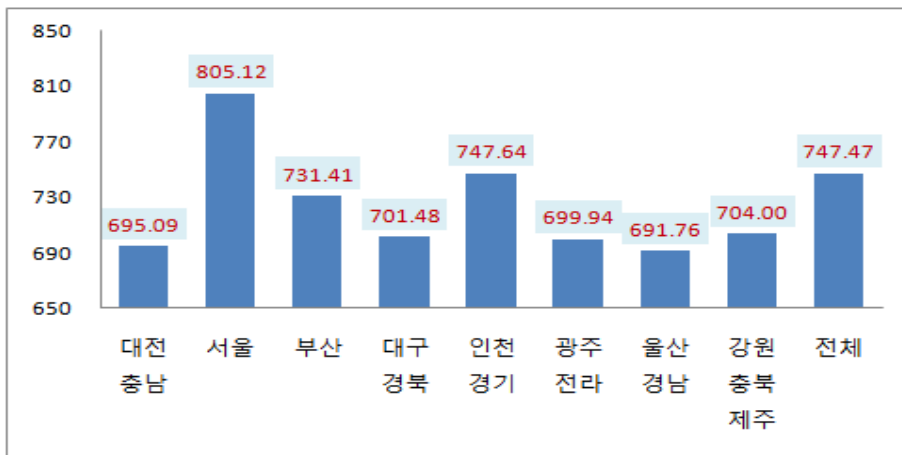
- 이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졸업자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장 충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인재양성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자의 공인영어 성적은 타시·도에 비해 낮은 편

○ [그림 3]과 [그림 4]는 시험응시비율과 평균토익점수에 대한 내용이다. 대전·충남지역 대학교 졸업자의 공인영어시험 응시비율은 28.1%로 전국평균 38.1%보다 10.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토익점수는 695.1점으로 전국평균보다 52.4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출신대학 지역별 영어시험응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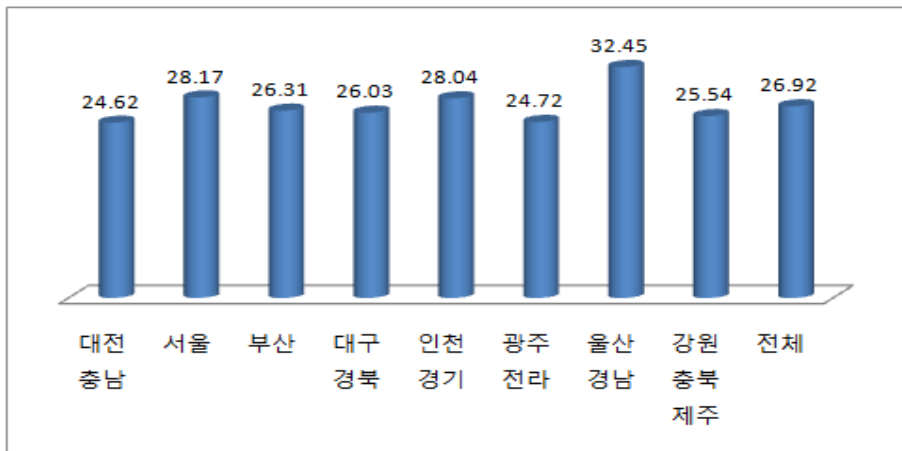


[그림 4] 출신대학 지역별 평균토익점수

- 대전·충남지역 대학교 졸업자가 좋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어학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낮은 편

- [그림 5]는 졸업한 대학에서 취업캠프, 직장체험프로그램, 적성검사, 취업 박람회, 진로상담 등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 대전·충남지역 대학졸업자의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은 24.6%로 전국평균에 비해 2.3%p정도 낮은 편이며, 특히 울산·경남과 비교하면 7.7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충남지역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내 기업과 연계한 취업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지원확대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지역별 출신대학의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

Ⅳ. 노동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모든 졸업자를 같은 조건에서 실증 분석하여 취업확률¹⁾과 월평균임금을 높이는 변수에 대해 분석한 이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같은 조건에서 취업확률을 분석해보면 해외연수경험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수록,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을 받을수록 취업확률을 높여주고 있으며, 영어성적은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업 취업확률²⁾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확률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경험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은 대기업취업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경험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취업확률에서 취업확률을 낮추던 공인영어성적은 반대로 취업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외연수경험과 자격증, 공인영어성적은 같은 조건에서 임금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임금 수준을 높이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과 개인의 어학수준은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중요변수로 볼 수 있다. 전체취업확률에서 영어성적이 취업확률을 낮추는 변수로 분석된 요인으로는 영어성적이 있는 사람은 소규모 기업보다 중기업 이상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500명 이상의 회사규모 취업확률에서 어학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결과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 없이 전체 취업확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500명 이상의 회사규모에 근무하는 사람을 1, 1-499명 크기의 회사규모에 근무하는 사람을 0의 더미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은 없음을 밝혀둔다.

<표 3> 4년제 졸업자의 취업·임금 실증분석

설명변수	전체 취업분석	대기업 취업분석	설명변수	임금분석
성별더미(기준:남성)	0.089	0.566***	성별더미(기준:남성)	0.147***
나이	0.138**	-0.102	나이	0.189***
나이제곱	-0.002**	0.001	나이제곱	-0.003***
해외연수더미	0.242***	0.112*	해외연수더미	0.074***
자격증더미	-0.084	-0.529	자격증더미	0.071***
직업교육훈련더미	0.255***	0.106	직업교육훈련더미	-0.003
취업프로그램더미	0.145**	0.318***	취업프로그램더미	-0.035
공인영어성적더미	-0.412***	0.629***	공인영어성적더미	0.048**
건강더미	-0.529***	-0.411*	건강더미	0.089
Intercept	-1.228	-1.397	Intercept	1.907
-2 Log Likelihood	-4844.05	-4398.43	lambda	-0.303***
N	11,209	9,577	N	3,893

- 주: 1) 취업분석은 로짓모형, 임금분석은 해크만의 표본선택모형으로 분석함.
 2) 취업분석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 대기업취업여부, 임금분석의 종속변수는 월평균임금임.
 3)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준오차값, 선택식의 프로빗 추정결과는 지면상 생략하였음.
 4) 각 분석의 인적속성, 지역대학속성과 임금분석의 기업속성 변수는 지면상 생략하였음.
 5)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GOMS1』

V.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

- 본 연구에는 SWOT분석을 통해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WOT 분석

- SWOT 분석은 외부 환경분석에서 파악된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요인과 내부 역량분석에서 파악된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요인을 Matching 시킴으로써 각 상황에서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충남 노동시장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회요인

- 대전·충남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세종시 등 입지여건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애로전담제,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등 정책지원으로 많은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2) 위협요인

-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방대학은 인재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지방대학의 졸업자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3) 강점요인

- 대전·충남의 졸업자는 전공일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약점요인

- 대전·충남 졸업자들은 전반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이 낮고 취업프로그램의 참여 비율도 낮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SWOT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도출

- 대전·충남 노동시장의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대전·충남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회-강점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 대전·충남은 많은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전·충남의 졸업자는 전공일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높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기존기업 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에 투자한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졸업자들이 대전·충남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위협-강점 (강점을 가지고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의 대학 졸업자의 전공 일치도는 매우 높아 기업이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대전·충남의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대학에 시설투자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상호간에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기회-약점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

- 대전·충남 졸업자들은 전반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이 낮고 취업프로그램의 참여 비율도 낮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실증분석결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은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여주는 변수이며, 공인영어성적은 취업 이후 받는 임금을 높여주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를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주요변수인 공인영어성적과 자격증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4) 위험-약점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 대전·충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영어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참여비율이 낮은 편인데 보다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아울러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전·충남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기업이 필요한 실질적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 SWOT 분석결과

구 분	기회	위험
	많은 외투기업과 대기업의 투자가 예상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확대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큼
강점	기회-강점	위험-강점
전공일치도가 가장 높음	대전·충남에 투자한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대학은 지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시설투자과 장학금 제공
약점	기회-약점	위험-약점
영어성적과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이 낮음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로 실질적 인재를 양성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실무적 교육을 통한 차별화

VI. 결론 및 시사점

-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의 치열한 생존경쟁하에 있다.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은 지역 내 졸업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대학은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대전·충남권 대학은 뛰어난 인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세우고 지역의 유관기관(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등), 전문가 등과 연계를 통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혹은 기구 설립, 그리고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전·충남은 대학과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지역 내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학교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전·충남의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기업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지역내 대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내 대학교 졸업자들이 지역의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적시에 취업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산·학·관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인력난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참여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직무교육, 채용 연계·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담고 있다.
- 대전·충남지역 졸업자의 경우 대전·충남지역을 떠나는 이탈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대학과 지역기업 간 상호협약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다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대학과 지역에서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도 어학능력 향상과 자격증 획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김동준, kdj0113@korea.ac.kr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통계학과 연구원

김양중, kyj0509@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4

◆ 참 고 자 료 ◆

- 송석두(2003), “충청남도과 지역내 대학의 협력실태와 과제”,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제12권, pp 123-150.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pp 1-27.
- 김홍균·문용호(2007), “표본편의 및 측정오차 존재 시 가구구성원들의 교육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21집 제2호, pp 47-68.
- 정동섭·강인철(2007), “대기업의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기피의 원인규명과 지방대학의 바람직한 인재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제14권 제2호, pp 161-174.
- 이상록(2007),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현황”, 『지역발전연구』, 제7권 제1호, pp 253-270.
- 백일우·임정준(2009), “여성고등교육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pp 1-26.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
- Jacob A. Mincer(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 43-63.
- Heckman, J.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 47, pp 153-161.
- Lisa M. Lynch(1989),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Eighties: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Young man and wo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1, No.1 pp 37-45.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보고서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의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비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권영현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